

Story 15

오 * * 중어중문학과 2020년 졸

한국전력공사 행정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한국전력공사
- ▶ **직무** 행정
- ▶ **스펙** 학점: 3.73
토익: 885점
- ▶ **현장실습** KT&G 광주전남본부 (8주)
- ▶ **봉사활동** SK Sunny, 현대자동차 해피무브, 삼성 드림클래스
- ▶ **아르바이트** 광주 운암동 영어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1년
- ▶ **기타** 중어중문학과 학생회 부회장, 인문대학교 취업서포터즈
한국전력공사 전기사랑기자단
- ▶ **자격증** 한국사 1급, KBS한국어능력 3+, 오픽 IH





대학생활 스토리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던 중학교 3학년 즈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정도로 공부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계로 진학하지 않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두발규정도 있고 공부도 엄하게 시키는 학교로 진학해 인생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모범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야간자율학습을 도망치고 목욕탕, 피시방, 당구장을 다니면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을 따라 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습관을 쌓아 성적 상상을 이뤄냈고 1년이라는 재수생활까지 더해 전남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일주일 후에 입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한마디 못할 정도로 1년을 허비했고 결과적으로 1학년 학점 2.00(대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역하고 맞이한 2학년 1학기, 대학교 공부를 제대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노력대비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대학생활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바로 인문대학교 취업지원실 '이선현' 선생님. 선생님을 처음 뵈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고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는 기업인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어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과 대표로 취업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활동에서 각 과의 대표로 뽑힌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역량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기보다는 나도 이 친구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원한 대외활동은 'SK Sunny'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봉사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메이저 기업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 운이 좋게 면접까지 합격해서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한번 합격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 한 학기에 한 가지씩 대외활동을 수행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현대자동차 해피무브 그다음 학기에 KT&G 현장실습 그다음 학기에 삼성 드림 클래스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외활동만큼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했던 면접경험이 실제 기업 면접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활동을 저처럼 너무 많이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 같은 대외활동 개수를 제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2개 정도(?) 수행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으로 국한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자소서가 아닌 필기전형이기 때문에 대외활동 개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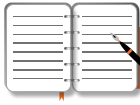
학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마지막 학점은 3.73입니다. 2.00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학점 올리는 꿀 팁이라고 하면 바로 경영대학 외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인문대학 학생이라면 복수전공, 부전공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경영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유독 경영대학 수업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30학점 이상 수강했고 이 안에서 절반 이상은 외국어 수업(절대평가)을 수강하면서 학점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NCS필기 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취업시즌이 닥쳐서 따로 전공을 준비하는 것보다 **경영대(경영,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미리미리 전공 필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그 덕을 좀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인턴활동을 대부분 많이 고려하실 겁니다. 특히 저희 회사 입사자분들도 인턴을 하고 오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턴활동의 장점 그리고 단점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을 하면 이력서에 작성할 뿐만 아니라 면접에 가서도 할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을 하는 시즌에는 정작 중요한 필기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기업 체험형 인턴에게 직접 실무를 맡길 수 없으므로 가만히 앉아서 8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취업 시즌에 인턴을 하기 보다는 스터디를 통해 필기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업 준비는 4학년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은 그 전 방학 기간이나 시험 기간 외에 기간을 활용해 취득했습니다. 닥쳐서 입사지원,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것보다 먼저 자격증을 다 갖춰놓고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준비하려고 하면 두 가지다 놓칠 수 있기도 하고 입사지원 시즌이 다가오면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격증을 취득을 먼저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NCS 스터디는 월, 화, 수 주 3회 진행했고 면접 스터디는 주 1회 일요일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친구를 따라 스터디를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공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공계 친구들과 문과계열 친구들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공계 친구들은 저희보다 수리, 차트 파악이 빨랐고 저희는 이공계 친구들보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부분이 수월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공계 친구들도 함께하는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참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므로 제가 고집하던 방식보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서 스터디 참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목적은 다들 취업에 성공해 스터디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위기의 스터디를 찾아 최대한 빠르게 모두가 각자 살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부에 집중하세요. 너무 친해져도 골치 아프고 딱 적당한 사이를 유지하시길 추천합니다.



자기소개서 (한국전력공사)

1.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두 가지 선택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 교육사항, 경험/경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십시오. (700자, 공백 포함)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은 '기업가형 인재'이며 다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 인재상을 발휘하고 습관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매뉴얼 제작

기호품 제조업체에서 고객 상담을 수행하며 함께 근무했던 현장실습생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제가 먼저 배운 상담 노하우를 공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조직의 체계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알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의 영업 방향성, 업무수행 체계를 준수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했던 실습생 중에서는 하루 평균 70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하는 업무를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저는 제가 배운 내용을 퇴근 이후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고,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제안하여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한글 파일로 회의 내용을 매뉴얼화해서 공유했습니다. 실습생들은 저의 배려를 너무나 고마워했고 덕분에 강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후 하루 평균 17% 이상의 재 상담률 감소와 부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기업가형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항상 회사를 먼저 생각하며 주변의 사우들과 함께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지속해 조직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본인의 교육사항, 경험/경력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700자, 공백 포함)

상생의 문화를 공유하며

고유한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은 많아도 뚜렷한 문화를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그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저는 상생의 문화를 가진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MOU를 체결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 시설을 보급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서거차도에 직류 배전망, 에너지통합운영시스템, 직류 디지털 가

전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직류 생태계를 조성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전력 사용 불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생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 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진두지휘하기 보단 학생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며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학생들을 확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고 세심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사무직에서 일치하는 방향성을 확인했기에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문화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가진 그 문화의 힘에 제 역할을 더하여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3. 최근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문제의 원인, 개선방안 등 포함)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공백 포함)

더욱 많이 더욱 효율적으로

전기사랑기자단 활동을 수행하며 '초전도 케이블'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은 전선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도체를 일정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물질로 대체해 제작하는 케이블입니다. 현재 송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 규모는 연간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 케이블이 상용화되면 기존 구리선 대비 송전손실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교류의 경우 5배, 직류의 경우에는 10배에 달하는 전기를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도심까지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대 5개의 변전소가 필요했지만,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면 1개의 변전소만 건설해도 문제없이 송전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으로 전력을 송전하며 미래 전력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하며 초전도 케이블과 같은 미래동력 창출의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학습, 업무수행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 업무 효율을 높여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국전력공사의 '초전도'이 되겠습니다.



입사지원경험 (한국전력공사 사무)

가. NCS 후기

한국전력공사 NCS는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5월 중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NCS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끝까지 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험에서도 '끝까지 풀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6개의 건너뛴 문제를 포함해서 끝까지 풀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느꼈던 생각은 '작

년보다 쉽다'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필기에 합격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운이 좋게 합격했습니다. 공기업 필기에 합격한 곳이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했고 그만큼 저는 필기전형에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NCS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오답 풀이를 하고 오후 3시에 새로운 모의고사를 팀원들과 풀었는데, 이때 시험 시간도 오후 3시였기에 평소 문제를 풀었던 생체리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전은 오답 감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풀이를 통해 2가지 정답이 남았을 때는 최대한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답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비될 거 같고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문제는 부여잡기보다 과감히 스킵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사실 현재 공기업 중에 전공 필기를 보지 않는 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NCS실력 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경영학, 경제학)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NCS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더 실력이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상황에서는 전공에 더욱더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NCS 3 전공 필기 7 비중으로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경영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회계를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나. 면접후기

저는 2020년 상반기에 사기업 2곳, 공기업(한전) 1곳 면접을 경험했습니다. 공통된 후기는 자신 있게 씩씩한 목소리로 답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짓말은 면접이라는 긴장되는 공간 속에서 금방 들통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꾸며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담백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설플 프로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이미 면접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프로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씩씩한 아마추어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면접 합격(3곳 다는 아니지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1차 면접(4:1, 면접관 4명)

한국전력공사 1차 면접은 전공 면접입니다. 저는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상경'으로 지원했습니다. 물론 학과는 인문학과 학생이지만 저는 '상경' 선택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인문사회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므로 사전대비가 힘들고 수집할 수 있는 기출문제의 수도 상경이 더 많아서 상경을 강력 추천합니다.

전공 질문은 본인이 작성한 교육사항에서 면접 위원관님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과목(주제)을 갖고 4분이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관리'위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4분 다 제 말씀을 잘 경청해주셨고 그 덕에 씩씩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들어가

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제 온전한 답변을 진행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첫 질문이었던 전공질문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찔했지만 그다음 질문부터 막힘없이 대답했기에 마지막에는 씩씩하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는 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질문내용

- 인적자원관리에서 다면평가에 대해 아시나요?
- 인적자원관리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아시나요?
-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 대학생활 동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이유는?

(2) 2차 면접

2차 면접도 서울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시 이상 면접 대기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간식거리나 긴장이 완 화제 준비도 추천 드립니다.

2차 면접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성면접이다' '거의 다 끝났다. 너무 긴장하지 미라'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면접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물론 면접관 BY 면접관이겠지만 1차 면접 때는 면접관 사이에 티키타카가 존재했지만 2차 면접은 한 분이 연달아 계속 질문하시고 그다음 분이 연달아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총 4분 중에 양쪽 2분이 외부위원이시고 가운데 2분이 현직자 선배님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외로 꼬리 질문, 압박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면접관님과 아이컨택을 했고 항상 씩씩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4분 다 질문을 마치시고 한 분이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랬듯 저는 씩씩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왔던 답변은 '지원자 분 방침 정반대로 답변하셨네요.' 떨어짐을 직감했습니다. 면접결과를 기다리던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됐지만 결과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회사가 원하는 답변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가 아니라 제 자신이 이러한 생각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이 해당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그들이 바라는 답변으로 대답하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면접을 잘 봤는데 불합격한다면 그냥 그 회사와 본인이 맞지 않는 겁니다.

질문내용

- 경영학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전과를 할 생각은 없었나?
-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지원자가 10년 넘게 꾸준히 하는 일이 있나요?

- 자소서에 적힌 매뉴얼 작성은 본인이 주도한 일이었나요?
- 전기사랑기자단 활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전도케이블이라는 기사 소재를 어떻게 찾았나요?
- 본인 장점이 소통이라고 했는데 남들과 차별되는 소통역량이 무엇인가요?

다. TIP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저는 절대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학점도, 스펙도 절대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강점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감입니다. 많은 분이 '사기업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기업, 사기업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회사고 사람을 뽑는 회사입니다.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더더욱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취업에서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업 공기업 합쳐서 모두 100군데 넘게 지원을 했고 수십 군데 필기를 보고 세 군데 면접을 보고 최종 한국전력공사에 합격했습니다.

불합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량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과 해당 회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불합격에 여태껏 유지해오던 페이스를 잃는 게 더 큰 손실입니다. 그렇기에 수백 번 떨어져도 단 한 번의 합격만 한다면 충분하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나주 혁신도시, 광주전남 지역 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가장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역 사원 채용은 정말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만 이기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딱 한 번만 합격하시면 됩니다.